114회 여름 정기대공연 의소분 인수인계

* 의상: 의소분을 주축으로 구하는건 맞으나 아무래도 사이즈 등등의 문제도 있으므로 캐스트들 그리고 다른 공연진들과 함께 구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임. 특히 신발은 캐스트들을 쪼아서라도 최대한 본인 스스로 구하게 할 것.
* 소품: 소품을 부득이하게 만들어야 할 경우 동대문에서 재료를 구하는 것을 추천. 천같은 경우는 동대문종합상가 2~4층을 이용. 바로 살 수 있는게 아니라 아침에 샘플을 보고 주문을 넣으면 오후에 받아가는 형식(계산은 받을 때 함). 인력으로 들고올 수 없는 소품은 어떻게 옮길것인지 미리 염두해두고 급하게 구하지않는것이 좋음(이번 공연에서는 본인의 부모님이 자차로 옮겨다주심).
* 분장: 분장용 화장품이 있다면 좋겠지만 없다면 일반 화장품을 써도 나쁘지 않음. 파운데이션 호수는 다양하게 준비해두는게 좋음. 만약 없다면 밝은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그 위에 갈색 섀도우로 덧칠하는 방법도 있음. 특히 노역 분장같은 경우 한톤 어두운 피부로 만들고 그 위에 주름을 그려야함. 주름을 그릴 때는 실제로 그 사람의 표정주름 위에 그리는게 보기에 자연스러움. 모든 분장은 쎈 조명 아래에서도 티가 나야함. 다소 과한감이 있어도 그게 맞음. 화장이 아니라 분장임을 명심할 것.